

머리글

나는 오랫동안 붓(筆)을 칼(劍)이라 생각해 왔다. 그러나 이제 나는 우리의 칼이 아무것도 자르지 못하고 아무데도 휘두르지 못하는 미약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미약함에 대한 자기 인식이 바울식으로 보나 소크라테스식으로 보더라도 좌절이나 절망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겸허를 통한 도약으로 가는 길임을 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책을 만들고 또 금후에도 쉬잖고 만들 것이다. 어쩌면 우리의 붓은 칼이라기보다는 불(火)이라는 생각이 든다. 마음대로 휘둘러 호령은 할 수 없지만 어둠 속에 잠겨버리지 않고 빛을 내는 불일 것이다. 그 불도 찬란한 햇불이 아니라 감한 밤길을 비추는 등불같은 불일 것이다. 이것은 Oxford대학의 교지(敎旨)처럼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는’(시 36:9) 것일 뿐만 아니라 주의 광명으로 인해 우리가 광명을 내는 것이다.

통합연구학회와 동역회는 교육을 성경적 원리 위에 정립하고 대학과 학문을 기독교 철학 위에 정초하고자 지난 여름 두레마을에서 학회를 가졌다. 여기에 실린 글 가운데 이근삼 학장님과 문선재 교수님의 글은 그 여름학회에서 행한 기조 강연 겸 전체 주제발표이다. 여기의 필자들과 함께 우리 학회는 교육의 영역과 대학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학문의 주인이 인간과 그 이성(理性)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다. 오늘날 지식 습득과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교육현실, 인본주의적이고 합리성을 절대화하는 학문풍토, 그리고 이기적 욕망과 광기로 가득차 있어 무엇을 위해 존립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대학의 모습을 목전(目前)에 두고 우리는 참교육과 바른 대학의 본질을 외치고자 한다.

‘기독교대학의 신학적 기초’를 쓰신 이근삼 학장님은 기독교대학은 하나님의 창조명령에 대한 인간의 신앙적이고 교육적인 반응으로 기독교 정신을 인간의 정신세계와 문화세계에 구체화하는 사명을 지닌다고 한다. 그는 기독교대학은 하나의 신앙공동체(信仰共同體)로서 바른 신학적 기초를 지녀야 한다고 하면서 그 기초로 유신론 신앙(有神論 信仰)과 신행일치(信行一致)를 들고 있다.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교육’에서 문선재 교수님은 기독교 교육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을 본질로 하는 공동체의 교육임을 강조하고 그 방법으로 인간 변화를 위한 생명전달의 법칙, 영성훈련, 그리고 책무성을 들고 있다.

「통합연구」를 위해 특별히 글을 써서 바다 건너 이역만리로부터 보내주시는 Dordt대학의 Hulst 학장님은 ‘기독교대학의 세속화’라는 글에서 자기 대학과 화란의 Leiden대학, 자유(Free)대학, 그리고 미국의 Vanderbilt대학 등의 실패를 들면서 어떻게 기독교대학이 세속화되었고 그 대응책이 무엇인지를 잘 분석 제시한다. 기독교대학이 세속화되는 원인으로 교회와 대학의 과제분담에 대한 혼란, 교육신조의 부재, 또 신학과 외의 다른 학과의 교수진에 대한 관심소홀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그 대응책으로 기독교 교육의 과제에 대한 분명한 이해, 성경적 교육신조 수립과 교수, 모든 교육과정에 대한 성경적, 신앙고백적 관심이라고 했다.

귀중한 시간을 들여 Hulst 학장님의 원고도 번역해 주시고 또 다년간 그와 더불어 여러가지 기독교 교육 연구에 주력하고 계신 김성수 교수님도 직접 논문 ‘학교 및 학교 교육에 대한 성경적 조망’을 써 주셨다. 이글에서 그는 학교의 독특한 교수·학습기능이 가정과 국가, 교회 등 사회기구와의 올바른 이해 및 상호협동의 관계 속에서 교육적인 교수활동으로 나타나야 하며, 현대 학교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학교의 모든 활동을 인본주의적인 종교적 동인이 아닌 철저하게 성경적인 종교적 동인 위에서 운용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양승훈 교수님은 ‘현대 학문정신 비판’이란 논문에서 현대 학문정신을 지혜나 힘을 얻기 위한 수단, 파편화된 지식, 연구의 대형화로 인한 인간의 부품화, 절대진리에 대한 개념의 실종, 학문의 해방기능에 대한 폭넓은 정의, 진리보다는 참신한 것에 대한 추구로 열거하면서 각 항목에 대해 성경적 학문원리에 근거하여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밖에 미국에 계신 김영걸 교수는 W. Byrne의 책을 기독교 교육적인 자기고백을 가미하여, 송기상 선생님은 A. Holmes의 저서를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좋은 서평을 하고 있다.

이 펼친 모두는 각자의 교육현장에서 기독교적 교육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로 이분들을 우리 「통합연구」에 모시게 된 것을 편집인으로서 기쁘게 생각하고 또 감사드린다.

이분들의 글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행하는 학문과 교육이 무엇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대학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정연한 논리와 분명한 필치로 규명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붓의 역작(力作)들은 한 갈래 길을 비추는 등불이 아니라 저 옛날 아메리카 인디안의 격언처럼 밤하늘에 박혀 결코 떨어지지 않고 작금의 교육과 대학의 암울한 현실을 밝히는 글들이라 할 것이다. 끝으로 기독교적인 교육은 단순한 지식전달과 인격수양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한 산 교육이라고 생각하며 근세로의 길목에서 신비주의자로 나타났던 Meister Eckhardt의 경귀가 문득 떠오른다:

“한 사람의 삶의 스승이 천 사람의 학문의 스승보다 낫다(Ein Lebemeister ist besser denn tausend Lesemeister)”

92년 1월 따뜻한 겨울

편집인 전 광 식